아시아교육연구 10권 2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09, Vol. 10, No. 2, pp. 349-381.

사교육비 지출의 성별 차이 분석

강태중(姜泰重)*

논문 요약

이 논문은 사교육비 지출이 학생의 성(性)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였다. 아울러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성별 차이에 대하여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 설명을 시도하였다. 단편적으로 논급되어 온 사교육상의 성차(性差)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사교육 연구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종단적 데이터를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방향이 다른 성차를 발견하였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학생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여학생이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별로 사교육비 지출이 다른 데 대해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서로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녀 학생의 가정이 자녀구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이 성차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남녀 학생이 진로를 다르게 추구하는 점이 성차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련에는 우리사회의 전통적이며 가부장적인 인습이 작용한다고 추론하였다.

■ 주요어 : 사교육, 사교육비, 사교육 행위, 성차별, 성차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Ⅰ. 머리말

이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이 남녀 학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찰한다. '남녀평등'이 보편화된 '현대'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이 성(性)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구태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자녀 양육에서 성차별의 양상은 거의 사라졌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들딸 구별 않고 하나만 낳는다는 출산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의 성차(性差) 문제는 실감되지도 않고 중요하게 간주되지도 않는 듯하다. 그러나 성차는 아들딸을 차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딸의 차이를 고려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판단이 자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면, 사교육과 같은 교육 행위가 아들과 딸에 대하여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는 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에서의 남녀 차이를 주제로 삼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교육 행위에 관련된 여러 가설을 탐색적으로 검증하는 가운데 성차의 가설을 삽입하여 다루거나(예컨대, 이은우, 2004), 사교육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탐색(분석)하는 과정에서 성 변인을 투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지나가듯 논급하는(예컨대, 백일우, 1999; 유형선, 윤정혜, 1999; 채창균, 2006)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무관심은 성차를 성차별에만 관련시켜 논의해온 타성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들딸 구분 없이 부모의 교육 열기가 솟는 현실에서 성차별의 가능성을 살펴볼 이유를 발견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러나 성차는 남자에게 더 돌아가는 양태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표면적으로 남녀간 분배가 동일하다고 해서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교육에서 보더라도,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치우친 현상(예컨대, 예능 과외)도 있을 수 있고, 외견상 평등하지만 내면적으로 차별적인 현상(예컨대, 대등한 비용이지만 프로그램이 다른 사교육)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면밀하게 고찰하는 작업이 의의를 지니는 만큼, 사교육에서 성차를 탐구할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성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인하게 되는 성차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앞 선 연구들은 '성차는 곧 차별의 결과'라는 통념에 갇혀서 성차에 대해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 성차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미 설명되어버린 현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의 성차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미답의 과제에 도전하는 일이 된다. 그만큼 그 시도는 한계를 안고 있는 작업이 되겠지만, 사교육 행위를 분석하는 데 긴요한 과정이 되는 작업이 되기도 할 것이다.

Ⅱ. 선행 연구 검토

학생의 성(性)은 사교육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교육 행위에 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교육비 지출에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거나 그런 요인들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분석에 성 변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때 분석이 성 변인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존 연구에서 성 변인은 다분히 타성적으로 다뤄져 왔다. 성 변인을 살펴보아야 할 이론적 이유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교육 연구에서 으레 포함하기 마련인 개인의 '기본 변인' 가운데 하나로 성을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성 변인에 대해서 얻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통계적 의의를 보고하거나 직관적인 추론을 첨언하는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선행 연구 검토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언급된 단서들을 통하여 사교육 행위에 성이 작용하는 양상을 개연적으로 구성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학생의 성이 사교육 행위(사교육비 지출, 사교육 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위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두 갈래로 언급한다. 우리 사회의 이른바 '남아선호사상'이 자녀를 위한 사교육 지원에서 여전히 작용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거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써 사교육비의 '투자수익률'이 남녀에 따라 다른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 사교육에 임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언급은 성에 따라 사교육 행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다르게 지목하고 있지만,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사교육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만 열려 있다고 가정하는 데는 일치한다.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 있어도, 그리고 남자 경우에 교육투자 수익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는 경우에도, 모두 남학생의 사교육비가 여학생의 사교육비보다 높을 가능성만 열려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상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백일우(1999)는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의 성이 '1년간 대입 과외 총 시간수'에만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영향을 미칠 뿐, 사교육비 지출이나 사교육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그는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한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는 "남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온 전통적 가족관(남아선호사상)이 핵가족화와 함께 사라졌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은우(2004)는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들과 딸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의 검증을 시도를 하였다. 이런 가설을 제기하는 논거를 그는 경제적 투자에서 찾았다. 사교육 투자도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부모들도 자녀의 성에 따라 돌아오는 수익률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남학생 자녀에게 사교육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그가 활용한 데이터는

가구 표본 조사에서 온 것으로, 취학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표집에 포함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학생의 성은 사교육비 지출액에 통계적으로 인정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설을 기각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연구는 가설이나 문제의식을 서로 다른 논거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그 실증적 검증(분석)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다른 관련 변인(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등)의 영향과 독립적으로 성의 변인(dummy variable)이 종속 변인(사교육비 지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회귀분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분히 자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동일한 결과를 한 연구자는 아들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사라진 결과로 해석하게 되는 데 반해, 다른 연구자는 가정의 사교육비 투자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가 이런 자의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성 변인의 영향에 대해 '있다-없다'의 이분적인 추정만 가능할 뿐, 그 영향의 구체적인 양상을 해명할 방도는 막힌다.

이를테면 채창균(2006)은 성의 변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그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을 분석하였고, 예상과 달리 여학생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통계적으로 의의있는) 결과를 얻었다. 그는 이은우(2004)와 같은 가정에서(합리적인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남학생에게 더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성 변인을 분석에 투입하였지만, 결과는 그 가정을 빗나갔다. 이런 결과에 대해 그는 아래와 같이 모호한 해석을 내놓는다.

>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상황 속에서 딸과 아들의 차별 양상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교육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아들과 딸 사이에 차이가 나는 현재 상황에서는 딸에 대한 투자보다는 아들에 대한 교육 투자를 우선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채창균, 2006: 174).

이런 해석은 분석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임의적이다. 실증적인 분석 결과는 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 정도를 넘어 딸에게 오히려 더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며 새로운 해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단서가 적어도 분석 결과에는 없다. 그러나 해석은 연구자의 가정(선입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성 변인의 영향에 관심을 두는 경우에도 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사교육 행위에서 성차(性差)가 있는지 탐색할 뿐, 확인하게 되는

성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해명할 방도를 연구 안에 강구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학생의 성이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작업은 대체로 두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사교육에 성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의 차이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차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실을 설명할 단서를 해당 연구들의 속성을 비교 검토하며 찾아내는 것이다.

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 선행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다. 성이 사교육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주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부인하는 연구가 있다. 전자에 속하는 연구로는 김홍주 외(1998), 박미희, 여정성(2000), 한국교육개발원(2003), 강상진 외(2005), 채창균(2006)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연구로는 유형선, 윤정혜(1999), 백일우(1999), 이주호, 홍성창(2001), 이은우(2004), 김미숙 외(2007) 등이 있다.

위에서 논급한대로, 이은우(2004)가 구체적인 가설을 제기하고 검증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연구들이 대체로 사교육의 성차를 기본적인 연구문제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 성 변인을 분석에서 고려한 연구들은 다양한데, ① 사교육 관련 일반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김홍주 외, 1998; 한국교육개발원, 2003; 김미숙 외, 2007 등), ②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두루 탐색하고 있으며(박미희, 여정성, 2000; 유형선, 윤정혜, 1999 등), 때로는 ③ 평준화정책과 같은 특정 요인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다(이주호, 홍성창, 2001; 강상진 외, 2005); 채창균, 2006 등). 대체로 이런 연구 안에서 성 변인의 역할은 자세하게 논의되지 않는다. 성 변인에 대한 통계치가 전체 분석을 요약해주는 표나 부록 등에 기록상 들어 있고, 지나가듯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이 성 변인의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급을 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각 연구가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의 속성이나 보고하고 있는 통계치의 방향 등에 비추어 새로운 연구를 위한 시사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우선, 사교육에서 남녀 차가 미미하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 연구들은 데이터에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그 연구들은 ① 특정 지역에 국한된 표집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거나, ② 학생의 학교급 등이 혼재한 가구 표집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 경기'나 '인천 지역' 등으로 표집이 제한된 데이터이거나(예컨대, 유형선, 윤정혜, 1999; 백일우, 1999), 초중등 학생을 포괄하거나 심지어 취학전 아동까지 포함시킨 가구조사 데이터를(예컨대, 이주호, 홍성창, 2001; 이은우 2004) 분석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국 대표 표집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더 나아가 학생의 학교급 또는 학년 구분을 적용한 표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 사교육에서 남녀 차이를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들 가운데 성차를 확인해주는 연구들은 모두 전국 대표 표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박미희, 여정성(2000)을 제외하고, 모두 학교급 또는 학년을 구분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성차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향을 포착하기 어렵다. 남학생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예컨대, 김홍주 외, 1998; 강상진 외, 2005), 여학생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예컨대, 박미희, 여정성, 2000; 채창균, 2006). 이 두 부류의 연구는 분석한 데이터의 속성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후자에 속하는(여학생의 사교육비가 더 높다는) 연구들의 경우, 가정배경에 대한 통제가 좀 더 엄격한 점에서 구분되는 점이 있다. 사교육비에 대한 분석에서 성 변인을 투입하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자녀수 등도 통제하고 있다.[1)]

제한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달리, 최근 통계청이 포괄적으로 시행한 사교육 조사 결과(통계청, 2009)는 성차에서 모종의 경향을 시사한다[2)]. 통계청 조사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세 학교급을 망라하여 이루어졌으며, 학교급별로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규모이건 참여율이건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없거나, 남학생의 경우에 다소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3)].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 이르면, 사교육비나 참여율 두 측면 모두에서 여학생의 우세를 보게 된다. 예컨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보면,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 평균 5천원 정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만8천원 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중학교 수준에서는 남학생이 1.6% 높은 참여 경향을 나타내는 데 비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학생이 4.3%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제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교육 행위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는 그 자체가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시사한다. 연구에 따라 남녀 차이에 대한 결론은 달랐다.

둘째, 사교육에서 남녀 차이를 분석하는 데는 일반화 범위가 큰(가능하면 국가 수준의) 대표표집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학교급이나 학년을 구분한 데이터가 더 바람직하다고 시사한다. 지역적으로 제한된 데이터나 다양한 연령(학년)의 학생을 혼재시켜 포함하는 데이터는 선명한 성차를 드러내는 데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1) 박미희, 여정성(2000)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자료(1997)를 분석하고 있는데, 가구 조사 자료이지만, 가구당 자녀가 2명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2) 통계청은 2007년부터 사교육 실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통계청, 2008)는 남녀 차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부분적이나마 남녀 차이에 대한 분석과 언급은 2008년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에서만 볼 수 있다.

3) 통계청(2009)의 자료는 통계적인 검증 없이 빈도나 분포 등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간 차이의 통계적 의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사교육에서 남녀 차이의 방향은 학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시사한다. 국가 수준의 대규모 조사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거나 남학생이 더 우세한 사교육 행위를 보이는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그 경향이 역전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 점에서 보면, 새로운 연구는 여러 학년에 대해 분석 비교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교육 행위에서 성차를 분석하려는 연구는 단순히 그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그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설명이 없이는 성차를 확인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의미가 해명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연구가 사교육 행위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는 남녀간 차이를 확인하고 그 연유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모형과 데이터(변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행위에서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일차적으로 아들딸을 구분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자녀 양육관이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시사한다. 그러나 전통적 양육관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양육관'이 더 이상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전통에서 벗어난 '달라진' 양육관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교육에서의 남녀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단순히 과거 차별적이던 양육관의 영향이 남아있는지만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날 자녀 양육관은 전통에서 벗어나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리고 이 변화한 양육관은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울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문제와 방법

1. 연구 문제

자녀 교육에서 아들딸을 차별했던 우리사회의 전통적 행태는 사라졌을까? 남녀간에 사교육의 차이가 있는지 탐구하는 것은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져 왔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하고 딸의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 했다고 알려져 있다. 사회적 개명은 이런 차별적 양육관을 퇴색시키고 아들딸을 구분 않는 근대적 자녀관을 정착시켰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사교육 행위를 고찰했던 기존 연구들이 성차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자녀관이 '현대화'되면서 과거의 '차별'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4].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지로 선행 연구 가

4) 앞 장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며 정리했듯이, 사교육 투자의 수익률이 성별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아들과

운데는 사교육 행위에서 성차를 찾아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이 결론 내린 경우도 있었다(예컨대, 백일우, 1999).

그러나 사교육에서 남녀 차이가 단순히 성차별을 반영하는 현상만은 아닐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후원하는 방식이 곧 사교육 행위라고 이해한다면, 사교육을 위해 아들만 후원하고 딸은 방기하는 식의 차이를 오늘날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예컨대, 아들에게는 체육 과외를 시키면서 딸에게는 음악 과외를 시키는 식의 차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아들과 딸을 차별 없이 같은 열의로 후원하더라도, 후원의 방도나 목표가 아들과 딸에 대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받아들이며 사교육에서의 성차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이 사교육에서 남녀 차이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온 것은, 그 차이가 만들어지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사교육에 남녀 차이가 있다면 성차별이 잔존하는 것이고 차이가 없다면 차별이 사라진 것이라고 단선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사교육상의 성차는 맥락에 관계없이 분석해도 무방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대로 아들과 딸에 대한 사교육 지원은 성차별적인 차이를 드러낼 수도 있고 양육 전략의 차이를 드러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사교육 행위가 여러 맥락에서 성별로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사교육에서 남녀 차이는 분석 조건에 따라 확인될 수도 있고 간과될 수도 있다. 예컨대, 어렸을 때는 아들딸 구분 없는 일반적인 사교육 전략을 구사하다가, 미래 진로를 의식하게 될 정도로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부모가 아들딸의 진로를 의식하여 사교육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어린 연령대에서는 사교육 성차가 나타나지 않지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성차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앞 장에서 검토한 통계청 조사 결과(통계청, 2009)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급별로 남녀 학생 사이에 사교육 참여율이나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달라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지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남녀 학생 사이에 사교육 행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먼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차이를 여러 연령대(학년)에 대하여 분석하고, 성차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그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지 더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다루려는 질문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할 수 있다.

딸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차별적으로 결정하는 '합리적' 행위가 사교육 성차를 가져온다고 가정하는 입장도 있다(예컨대, 이은우, 2004). 이 경우도 결국 부모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감안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사교육에서의 성차를 전근대적 성차별에 관련시키는 일반적인 통념과 크게 차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사교육 행위는 남녀 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은 사교육비 지출이 성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방식으로 다루게 된다. 사교육 행위 가운데 일반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교육비 지출에 주목하여 성차(性差)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부연하면, 이 연구 문제는 '개인 특성이나 가정 배경 등이 비슷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을 비교할 때,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성(性)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하는 질문으로 조작화(operationalization)되는 셈이다.

② 사교육 행위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차이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가?

이 질문은 사교육비 지출에서 나타나는 남녀간 차이가 다른 사교육 관련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탐색하는 방식으로 다루게 된다. 남녀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세 범주의 요인을 동원할 것이다. 학생들의 진로, 부모의 관심과 압력, 가정의 자녀 구성 등이다. 즉, 남녀별로 사교육비가 다르게 지출되는 이유는 ⓐ 남녀 학생의 진로가 달라서인지, ⓑ 부모가 교육 후원에서 아들딸을 차별해서인지, ⓒ 아들딸에 대한 선호가 다른데서 비롯된 자녀 구성의 차이 때문인지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모형으로 사교육에서의 성차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선행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 또 이에 대한 대안을 구상한 데서 온 생각이다. 앞 장에서 정리했듯이,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은 사교육의 성차가 아들딸을 차별하는 인습과 관련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이런 전제가 타당한지는 두 모형(ⓑ와 ⓒ)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즉, '부모의 관심과 압력'이 아들과 딸에 대해 달리 나타나는지(ⓑ모형), 그리고 아들을 선호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자녀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모형) 살펴보려는 것이다.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우리 사회 인습이 살아있다면, 아들과 딸의 교육에 대하여 부모가 다른 강도로 관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아들에 대해 더 관심을 쏟고, 성취 기대도 아들에게 더 높게 가질 것이다. 그리고 자녀 출산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면, 남학생 가정의 자녀수가 여학생 가정의 자녀수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아들을 두게 되면 단산할 가능성이 큰 반면, 딸을 둔 경우에는 아들을 기대하며 출산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지로 이 가능성은 우리나라 인구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또는 셋째 자녀의 경우 남녀 성비가 첫째에 비해 남아 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뚜렷한 것이다[5]. 결과적으로, 자녀수가 좀

5)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의 학생들과 동년배인 1989년생의 출산순위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를 보면, 첫째아의 경우 104.1이고, 둘째아의 경우 112.4이며, 셋째아의 경우는 무려 185.0이다. 아들을 얻기 위하여(딸만 있는 경우에) 자녀수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200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통계청의 '인구통계 조사보고서' 참조).

더 많은 가정에 속할 가능성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더 커지게 되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외자녀'의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6]. 그리고 가정의 자녀수는 일반적으로 자녀 1인당 사교육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백일우, 1999; 유형선, 윤정혜, 1999; 채창균, 2006; 강태중, 2009 등). 결국 여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이 적어도 평균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한편, 사교육 성차는 부모가 아들딸을 차별하는 데서 오기보다 아들딸에 대해 다른 후원 전략을 강구하는 데서 올 수도 있다. 선행 연구 가운데도 이럴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사교육비 지출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분석 결과에 대하여, 채창균(2006)은 여학생이 가격이 높은 예체능 사교육에 더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추론했다. 이와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성차는 '남녀 학생의 진로' 차이로 설명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모형).

2. 분석 자료와 방법

이 연구가 분석하는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데이터이다[7].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시작 당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두 표집(cohort)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표집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중학교 2학년 표집에 대한 조사는 2003년에 시작하여 고등학교 진학 후까지 종단적으로 이어져 왔다. 여기서 분석하는 부분은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7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데이터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표집은 '층화다단계집락 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을 대표하도록 이루어졌다. 중학교 2학년 표집의 경우, 1차년도에 104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44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종단적인 조사에서 4년간(2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추수에 성공한 사례수는 2차년도 3,106명, 3차년도 3,081명, 4차년도 3,077명, 5차년도 2,925명이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중학교 2학년 패널)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이 연구에 유용하다. 우선, 이 데이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5개 학년에 대해 일관된 항목의 정보를 지니

6)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별로 그가 속한 가정의 자녀수를 비교해보면, 남자의 경우 가정의 평균 자녀수는 2.1명인데 비하여 여자의 경우는 2.3명이다. 더욱이 남녀별로 가정에서 '외자녀'인 경우를 비교해보면, 남학생의 10.3%가 외자녀인 데 비하여, 여학생은 6.9%만이 외자녀이다. 이 성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분명한 의의를 지니는 것($p<.001$)이다.

7) 데이터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데이터와 함께 제공하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1-5차년도 User's Guide'에서 얻을 수 있다.

고 있다. 사교육에서의 남녀 차이가 학생의 성장(학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이 연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종단적인 정보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는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상정되는 변인들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 여기 분석에서는 성차를 엄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성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에 합당한 '설명 변인'들을 구성하여 투입할 필요도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는 이런 요건을 대체로 충족시켜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회귀분석(OLS regression analysis)이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성 변인과 기타 관련('통제'와 '설명') 변인으로 설명하는 모형의 회귀분석인 것이다. 필요한 변인의 통제 후에 성 변인이 사교육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지 살피는 방식으로 남녀 차이를 확인하고, 이 확인된 차이가 세 범주의 설명 변인[8]에 의해 해소되는지 살피는 방식으로 성차의 원인을 추론하려고 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SPSS 15.0 for Windows'이다.

3. 변인

성이 사교육 행위(조작적으로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성의 영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잡음 변인'들을 체계적이고 타당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통제를 위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할 변인들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선택하였다. 이때 변인 탐색을 위해 검토한 선행 연구들은 사교육비 지출 문제를 다양한 시각(문제의식)에서 접근한 것들이었다. 크게 네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 했던 연구들(이주호, 홍성창, 2001; 김현진, 최상근, 2004; 강상진 외, 2005; 채창균, 2006; 강태중 2008; 2009 등), ② 학교 교육이나 그 관련 요인들이 사교육 참여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한 연구들(백일우, 1999; 양정호 2003; 김현진 2004; 양정호 2004; 노현경 2006 등), ③ 가계와 소비에 대한 관심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했던 연구들(김인숙, 여정성, 1996; 유형선, 윤정혜, 1999; 박미희, 여정성, 2000; 이성림, 2005 등), 그리고 ④ 정책적 필요에서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려 했던 조사 연구들(한국교육개발원, 2003; 교육인적자원부 2007, 통계청 2008; 2009 등)이다.

사교육과 성의 관련을 직접 논급했던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면, 이 연구에서 분석을 위한 통제는 훨씬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셈이다. 기존 연구들은 제한된 지역에 국한된 표집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개인 특성이나 가정배경 등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만 시행하거나(예컨대, 백일우,

8) 앞 절 '연구 문제'에서 정리한대로, 설명을 위해 투입되는 세 범주의 변인들은 ① 학생의 진로, ② 부모의 후원, 그리고 ③ 가정의 자녀 구성에 관련 된 것들이다. 자세한 기술은 다음 절 '변인'에 있다.

1999), 가구 조사에서 얻은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의 통제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예컨대, 이은우, 2004). 성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고 있지 않지만 사교육비 분석에 성 변인과 함께 관련 변인들을 충실하게 투입한 연구들(예컨대, 채창균, 2006; 강태중, 2009)과 비교해서는 이 연구가 대등한 수준의 통제를 구사하고 있다.

한편, 사교육에서의 성차를 설명하기 위해 고려하는 변인들은 이 연구에서 새롭게 고찰되는 셈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 변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분석에서 고려했더라도, 이 변인들의 영향을 성 변인의 작용과 연계하여 분석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

여기 분석에 투입되는 변인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만들어졌는지 아래에 기술한다.

1) 종속 변인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행위를 드러내는 지표로 사교육비를 택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변인은 학생별로 조사된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단위)이며, 회귀분석의 가정에 부합하도록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 값으로 투입하였다. 사교육비는 보호자가 응답하는 가구 조사를 통해 확보됐다. 이미 밝힌 대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섯 학년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2) 독립 변인

독립 변인은 크게 네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분석에 포함시키고 있는 변인들로, ① 학생의 개인 특성 변인, ② 가정배경 변인, ③ 학교와 지역의 여건 변인, 그리고 ④ 성차를 설명하기 위한 변인 등이다. 이미 설명했듯이, 성차를 설명하기 위해 투입하는 변인(④의 변인)은 세 범주로 세분되는데, ⓐ 학생의 진로, ⓑ 부모의 후원, 그리고 ⓒ 가정의 자녀 구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이다.

(1) 학생의 개인 특성 변인

먼저 투입하는 변인은 여기 분석의 표적인 성(性) 변인을 포함하여 세 개 변인이다. 모두 사교육 행위와 관련된 개인 특성을 나타낸다.

① 성(gender): 여학생을 기준 집단으로 두고 남학생을 표시하는 더미 변인(dummy variable)이다. 1차 조사(중학교 2학년) 때의 응답을 사용했다.

② 성적: 백분위로 나타낸 학생의 성취도이다. 우수 학생이 높은 점수를 지니도록 100점에서 개인별 전교 성적 백분위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전교 성적 백분위’는 매 학년 조사에서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이며, 전교 성적 백분위가 없는 경우, ‘반 성적 백분위’로 대체하여 산출했다.

③ 교육 포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졸'(1점)에서 '대학원졸'(5점)까지 나열된 답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학생이 대답한 결과이다. 학년마다 조사되었다.

(2) 가정 배경 변인

두 번째 단계에 투입하는 변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환경을 나타내는 변인들이다. 모두 5개 변인이 투입된다.

① 아버지학력: 보호자를 응답자로 하는 가구 조사(1차 조사)에서 얻은 변인이다. '무학'(1점)에서 '대학원 박사'(8점)까지 분포한다. 아버지 학력이 누락되었을 때, 가능한 경우 어머니 학력으로 대체하였다.

② 보호자직업: 본디 데이터에는 가구 조사에서 보호자가 응답한 결과를 한국 표준 직업분류 코드로 부호화해 놓았다. 여기 분석에서는 이 자료를 여섯 범주(전문 경영, 관리·사무, 준전문 기술·서비스, 숙련 노동, 비숙련 노동, 무직)로 재분류하여 투입하였다. 0점(무직)에서 5점(전문 경영)까지 분포한 점수이다. 기본적으로 아버지 직업을 취하였으나, 누락된 경우 가능하면 어머니 직업으로 대체하였다.

③ 월소득: 만원 단위로 보호자가 응답한 결과이다. 매 학년 가구조사에서 확보했고, 자연로그 값으로 투입되었다. 표에서 'ln월소득'이라고 표기된다.

④ 자택소유: '집 소유 형태'가 '자택'인 경우를 가리키는 더미변인이다. 매 학년 가구 조사에서 얻었다.

⑤ 전업주부: '어머니 직업'이 '무직'인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 변인이다. 매 학년 가구 조사에서 보호자가 응답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3) 학교와 지역의 여건 변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그 소재지의 여건을 드러낼 수 있는 변인들이다. 세 개 변인이 투입된다.

① 도시화수준: 학교가 위치한 지역(시, 군)의 인구를 고려하여 여섯 범주로 나누었다. 즉, 서울(1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2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3점), 인구 25만 이상의 도시(4점), 인구 25만 미만의 '시'(5점), '군' 지역(6점)을 구분하였다. 이 변인은 사교육 시장의 규모나 공격성 그리고 교육 경쟁의 행태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강태중, 2009).

② 평준화여부: 학교 소재 지역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적용을 받고 있는 도시인 경우를 가리키는 더미 변인(dummy variable)이다.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선행 연구들의 대답은 분분하다. 그러나 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최근 연구는(강태중, 2009) 중학교 단계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발견하고 있다.

③ 학교경쟁력: “현재 다니는 학교는 진학에 유리하지 못하다”는 진술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을 가리키는 더미 변인이다. 학생 대상으로 매 학년 조사되었다. 흔히 학교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 수요를 낳는다고 여겨진다.

(4) 사교육 행위의 성차(性差)를 설명하기 위한 변인

세 범주(학생의 진로, 부모의 후원, 가정의 자녀 구성)의 변인을 교차적으로 투입하며, 각 범주의 변인이 성차에 가져오는 변화를 비교하게 된다. 각 범주에 속한 변인들은 아래와 같다.

▢ 학생의 진로

사교육에서 남녀 차이는 남녀별로 다른 진로를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이 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학교 단계에서는 세 변인(진학 희망 고등학교의 계열)이 투입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다섯 변인(재학중인 고등학교의 계열과 진학 희망 대학의 계열)이 투입된다.

① 특목/자사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가리키는 더미 변인이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가리키는 더미 변인이다. 학생 자신이 응답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업계고’ ‘예능계고’의 더미 변인이 같이 투입되므로, 기준 변인은 ‘일반고’가 된다. 사교육 정책 논의에서 특목고 등은 종종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특목고 등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어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되기도 한다(이주호, 홍성창, 2001).

② 실업계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공업고, 농업고, 상업정보고 등)에 진학하려는 학생을 가리키는 더미 변인이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가리키는 더미 변인이다. ‘특목/자사고’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준 변인은 ‘일반고’가 된다. 매 학년 조사에서 학생이 대답한 결과에 근거한다.

③ 예능계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예능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을 가리키는 더미 변인이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예능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가리키는 더미 변인이다. 역시 기준 변인은 일반고이다. 매 학년 조사에서 학생이 대답한 결과에 근거한다.

④ 이공계대학: 고등학교 단계 분석에서만 투입되는 변인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이공계’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더미 변인이다. 고등학교 재학중 학년마다 조사한 결과이다.

⑤ 예능계대학: 고등학교 단계 분석에서만 투입되는 변인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예능계’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더미 변인이다. 고등학교 매 학년 조사 결과에서 얻

었다.

▢ 진로에 대한 부모의 후원(관심과 성취 압력)

우리 사회에 전통적인 가치관이 잔존한다면, 사교육에서 남녀 차이는 부모가 교육 후원에서 아들딸을 차별하는 데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 변인을 투입한다.

① 진로관심: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많이 한다'까지 5점 척도로 나눈 답지에 학생이 응답한 결과이다. 매 학년 조사되었다.

② 성취압력: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진술에 대하여, '그런 적 없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나눈 답지에 학생이 응답한 결과이다. 매 학년 조사에서 얻었다.

▢ 가정의 자녀 구성

1절에서 연구 문제를 정당화하며 논급했듯이, 전통적인 남아선호 경향은 가정에 따라 자녀수나 구성이 다르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남학생이 외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게 만들고 또 평균적으로 자녀수가 적은 가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건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교육비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추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개 변인을 투입한다.

① 맏이: 자녀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학생을 가리키는 더미 변인이다. 아들딸을 불문하고 첫째 자녀를 가리키며, 혼자인 자녀('외자녀')도 이 변인 안에 포함된다. 중학교 2학년(1차 조사) 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구 조사 결과에서 얻었다.

② 자녀수: 가정의 자녀수를 가리키는 변인이다. 1차(중학교 2학년 때) 가구 조사에서 보호자로부터 얻은 응답에 근거했다.

이제까지 정리한 변인들의 기술통계 값(평균, 표준편차)은 <부록 표 1>에 정리하였다.

Ⅳ. 분석과 논의

사교육비 지출이 남녀 학생 사이에 차이가 나는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으로는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표집(데이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개 학년에 걸친 종단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성의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전에, 각 학년별로 사교육비 지출이 남녀간에 어떻게 다른지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을 두고 보면, 우선, 어떤 학년의 자료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성별 차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남녀 사이에 사교육비 차이가 분명하다고 볼 것이고, 다른 학년의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볼 것이다. 사교육비의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학년의 경우에도, 그 차이의 방향이 달라 판단은 더욱 혼미해진다. 중학교 3학년 결과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고등학교 3학년 결과로는 거꾸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지출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단순하게 분석해본 결과이지만, <표 1>에서 보게 되는 사례는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기존 조사나 연구들이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내놓게 된 경위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준다. 사교육 행위에 대한 성의 작용은 연령(학년, 학교급)이나 그 외 관련된 맥락(짐작컨대, 지역, 사회 계층 등)에 따라 다르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교육에서 성차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의 작용에 관련되리라고 판단되는 변인들을 같이 고려하는 일이 필수적이 된다.

한편, 종단적으로 볼 때 <표 1>의 결과는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확연하지는 않지만, 중학교 수준에서 성차는 남학생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지만, 고등학교 수준으로 갈수록 그 차이는 여학생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통계청, 2009)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점은 앞으로 이루어질 엄밀한 분석에서도 유의해서 살펴볼 사안이 된다.

<표 2>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기본 모형'의 분석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가능한대로 순수하게 포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교육비에 대한 회귀분석에 성 변인과 함께 다른 개인 특성 변인과 가정 배경 그리고 학교 여건 등

<표 1> 남녀간 사교육비 차이 비교: 학년별 일원변량분석 결과

구분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평균	26.39	28.06	27.11	25.15	23.22
	(표준편차)	(24.49)	(32.27)	(34.86)	(33.43)	(37.96)
여	평균	25.75	25.24	27.08	25.37	26.34
	(표준편차)	(29.09)	(28.04)	(32.67)	(32.98)	(38.79)
F 값		.481	6.660*	.001	.033	4.754*

※ 단위 만원. * $p < .05$

<표 2> 사교육비 지출의 성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중3 시기

변인		기본모형	진로모형	부모후원 모형	자녀구성 모형	종합모형
초점변인	성(남)	.177*** (.048)	.172*** (.048)	.171*** (.048)	.160** (.049)	.151** (.048)
개인특성	성적	.008*** (.001)	.005*** (.001)	.009*** (.001)	.008*** (.001)	.006*** (.001)
	교육포부	.149*** (.042)	.089* (.042)	.136** (.042)	.142** (.042)	.075+ (.042)
가정배경	아버지학력	.071** (.022)	.055* (.022)	.064** (.022)	.058** (.022)	.038+ (.022)
	보호자직업	.113*** (.028)	.107*** (.028)	.112*** (.028)	.122*** (.028)	.115*** (.028)
	ln월소득	.802*** (.050)	.775*** (.049)	.788*** (.050)	.799*** (.050)	.761*** (.049)
	자택소유	.271*** (.056)	.261*** (.056)	.269*** (.056)	.286*** .056	.273*** (.055)
	전업주부	.181*** (.048)	.184*** (.048)	.181*** (.048)	.185*** (.048)	.187*** (.047)
학교지역 여건	도시화수준	−.203*** (.028)	.211*** (.027)	−.202*** (.027)	−.192*** (.028)	−.200*** (.027)
	평준화여부	−.352*** (.087)	−.365*** (.086)	−.341*** (.087)	−.333*** (.087)	−.338*** (.085)
	학교경쟁력	.034 (.049)	.031 (.049)	.049 (.050)	.035 (.049)	.045 (.049)
교육진로	특목/자사고		−.123 (.177)			−.135 (.175)
	실업계고		−.565*** (.069)			−.547*** (.069)
	예능계고		.608* (.239)			.578* (.237)
부모관심	진로관심			.015 (.026)		.010 (.026)
	성취압력			.102*** (.028)		.083*** (.023)
자녀조건	맏이				.191*** (.051)	.185*** (.050)
	자녀수				−.135** (.040)	−.126** (.040)
R^2		.283	.302	.288	.294	.314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의 변인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투입한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고유하게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성적이나 교육 포부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가정 배경과 학교의 여건 등에서도 비슷한 조건에 있는 남녀 학생을 비교할 때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려는 것이다.

‘기본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남녀간에 사교육비 지출은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 변인의 계수가 뚜렷하게 통계적 의의를 확보하고 있다. 적어도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표 1>에서 보았던 단순한 남녀 비교 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이다. <표 1>에서는 다른 관련 변인들을 고려함이 없이 전국적인 경향을 비교했었는데, 여기 기본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배제하고 비교적 순수하게 성의 영향을 분석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 행위는 남녀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도 이와 같은 결론을 어느 정도 지지해준다. <부록 표 2>에 정리한 그 결과를 보면[9], 역시 '기본 모형'에서, 중학교 3학년에 대한 분석과 같은 방향의 남녀 차이(즉, 동일하게 양의 부호를 가지면서 통계적 의의를 확보한 '성'의 회귀계수)를 보여준다. 중학교 2학년 경우에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서 만큼 성차가 뚜렷하지는 않다. 성 변인의 계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통계적 의의 수준도 낮다. 그리고 <표 1>의 단순 비교도,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 남학생이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암시는 해주고 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에 대한 분석은 중학교 3학년 경우처럼 성차를 선명하게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하는 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사교육비 지출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성차는 어떤 요인에서 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가설은 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10]. <표 2>에서 '진로 모형', '부모 후원 모형', '자녀 구성 모형'의 세 칸은 그 가설에 바탕을 둔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진로 모형에서는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계열(또는 학교 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즉, 학생에 따라(특히 남녀 학생 사이에) 고등학교 진학 희망 진로가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통제)할 때,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성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교육비 지출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남녀 학생의 진로가 다르기 때문에(그래서 사교육의 전략이 남녀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진로 모형의 결과를 보면, '교육 진로'(고등학교 진학 희망 계열) 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성 변인의 계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에서 드러

9) 이 연구에서 분석은 다섯 학년 시기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분석 결과표를 모두 본문 안에 싣는 것은 편집상 무리이고, 논문 읽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전체 분석 결과를 집약하여 논의하는 일은, 중학교 3학년 결과와 고등학교 3학년 결과를 중심으로, 다른 학년에 대한 결과를 참조하며 가능할 듯하다. 그래서 본문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분석 결과표만 싣고, 나머지 세 학년(중2, 고1, 고2)에 대한 분석 결과표는 부록에 실었다.

10) Ⅲ장 1절의 '연구 문제' 기술 참조.

나는 성차는 학생들의 희망 진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남녀간 진로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런 판단은 중학교 2학년에 대한 분석에서도 지지를 받는다. <부록 표 2>의 진로 모형 역시 중학교 3학년 결과와 다름없는 결과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교육 진로 변인을 투입하여도('진로 모형'에서) 성 변인의 계수가 기본 모형의 상태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나타나는 남녀간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고등학교 진학 진로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부모 후원 모형에서는 자녀 진로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와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의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남녀간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아들딸에 대하여 갖는 부모의 진로 관심이나 성취 욕심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아들딸을 차별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살아있다면 부모 후원 모형의 분석 결과가 통계적 의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표 2>에서 부모 후원 모형의 결과를 보면, 진로 모형의 경우와 비슷하게, 기본 모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 변인의 계수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에서 나타나는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간 차이(남학생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는 부모가 아들딸에 대하여 달리 관심을 가지는 현상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은 듯하다.

중학교 2학년 시기의 분석 결과도 3학년 분석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부록 표 2>의 부모 후원 모형 결과 역시 기본 모형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부모의 차별적 관심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아들과 딸에 대해 교육적 관심이나 성취욕을 달리 지니기 때문에 사교육비에서의 성차가 나타난다는 가설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녀 구성 모형에서는 학생이 맏이인지 그리고 가정의 자녀수는 몇 명인지, 기본 모형에 추가하여 고려하고 있다. Ⅲ장에서 연구 문제(1절)를 기술하면서 이미 정리했듯이,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 경향은 남녀 학생이 다른 구조의 가정에 속할 가능성을 낳는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자녀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자녀수가 적은 가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자녀 구성 모형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사교육비 지출에서의 성차를 설명해주는지 검토하게 된다.

<표 2>에서 자녀 구성 모형은, 앞에서 검토했던 다른 두 모형(진로 모형과 부모 후원 모형)과 달리, 성 변인의 작용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맏이 변인과 자녀수 변인을 추가했을 때, 성 변인의 계수는 좀 더 뚜렷하게 줄어들었고, 그 통계적 의의도 한 단계 떨어졌다. 맏이에게 사교육비를 더 투자하는 경향이나, 많은 자녀수의 가정에서 자녀 1인당 사교육비가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중학교 사교육비에서의 성차와 관련이 있다고 시사하는 결과이다. 분석 결

과를 그대로 읽어보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3학년 여학생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맏이의 지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더 크거나[11], 적은 자녀수의 가정에 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주6 참조)에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이와 같이 남학생이 가족 구조상 유리한 여건에 있게 되는 데는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 경향이 작용하고 있다. 요컨대 중학교 수준에서 나타나는 사교육비 성차에는 전통적 남아선호 경향이 잠재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추론은 <부록 표 2>의 중학교 2학년 분석 결과로도 뒷받침 된다. 자녀 구성 모형을 보면, 여기에서도 맏이 변인과 자녀수 변인을 투입했을 때 성 변인의 계수는 통계적 의의를 잃는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중학교 2학년에서 나타나는 사교육비 성차는 3학년에서 보이는 만큼 크지는 않지만, 역시 우리 사회에서 남녀 학생이 '자녀 구조가 다른 가정'에 속하게 되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학년 분석에서 확인한 현상이 2학년 분석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중학교 3학년과 2학년에서의 사교육비 성차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세 가지 모형 가운데 가장 유효했던 모형은 자녀 구성 모형이다. 진로 모형과 부모 후원 모형은 성차를 설명해내는 데 의미있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로 보면, 중학교 단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현상은, 남녀 학생이 다른 진로를 추구하게 되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교육적 관심이 자녀 성별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닌 듯하다. 남아를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경향이 가정의 자녀 구성을 다르게 만들고, 이 구성 차이가 남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이 여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배경이 되고 있는 듯하다. 즉, 남아를 선호하는 출산 행위의 여파로, 여학생은 자녀수가 많아 지출을 좀 더 쪼개야 하는 불리한 가족 구조에 속할 가능성이 남학생에 비해 더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에게 돌아갈 사교육비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남녀 학생간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중학교 단계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띤다. 이미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무엇보다 차이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학생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여학생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학년마다 남녀 차이 정도는 좀 다르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있는 경향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기본 모형에서 확인할 수

11) 남자가 여자보다 첫째로 태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런 가능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자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때문에 야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장의 변인 설명(3절)에서 명기했듯이, '맏이' 변인은 첫째 자녀뿐만 아니라 혼자인 자녀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주 6)에서 확인한 것처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자녀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있는 것처럼, 성 변인의 계수는 음의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으로도 확연한 의의를 확보하고 있다. 사교육 관련 개인 특성이나 가정/학교 배경이 비슷한 남녀 학생을 비교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부록 표 3>의 고등학교 1학년 분석 결과와 <부록 표 4>의 고등학교 2학년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 차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표면으로만 보면, 아들딸을 차별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행태는 고등학교 사교육 현상에서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남녀 학생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이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학생의 지출이 더 많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들에 치우치는 교육 지원 현상은 사라진 것으로 느껴진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이미 보았듯이, 사실 기존 연구들은 이와 같은 해석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예컨대, 백일우, 1999).

그러나 여학생이 사교육비를 일관되게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성급한 해석보다 신중한 설명이 필요하다. 중학교 단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모형을 통해 고등학교 사교육에서의 성차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결과는 기본 모형과 나란히 정리되어 있다. 우선 <표 3>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진로 모형'이 확연한 설명력을 보일 뿐, 나머지 두 모형의 힘은 미미해 보인다.

<표 3>의 진로 모형에서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계열과 진학 희망 대학의 계열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 진로 모형의 결과를 왼쪽 옆 칸에 있는 기본 모형의 결과에 비추어 읽어보면, 고등학생들의 진로 양태가 남녀간 사교육비 차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의 진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진로 모형에서, 성 변인의 계수는 절대값이 기본 모형의 결과에 비해 거의 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그 통계적 의의도도 뚜렷하게 떨어졌다. 남녀 학생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상당한 부분 남녀 학생이 다른 진로를 추구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부록 표 3>과 <부록 표 4>에 정리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분석 결과에서도, 진로 모형의 설명력은 마찬가지로 두드러지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남녀 학생의 진로가 분명하게 갈리고, 이런 진로 분화가 남녀 학생의 사교육비 차이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표 3>의 진로 모형을 보면, 사교육비 지출에서의 성차가 세 가지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덜 지출하는 경향, ② 예능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 그리고 ③ 예능계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 등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실업계 진로에 대해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여기서 분석중인 데이터에서 보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25% 정도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20% 정도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전국 모집(母集) 통계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표 3> 사교육비 지출의 성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고3 시기

변인		기본모형	진로 모형	부모후원 모형	자녀구성 모형	종합모형
초점변인	성(남)	−.251*** (.064)	−.132* (.066)	−.250*** (.064)	−.258*** (.065)	−.140* (.067)
개인특성	성적	.005** (.001)	.007*** (.001)	.004** (.001)	.005** (.001)	.007*** (.001)
	교육포부	.473*** (.048)	.340*** (.051)	.402*** (.049)	.466*** (.048)	.293*** (.051)
가정배경	아버지학력	.198*** (.028)	.154*** (.028)	.178*** (.028)	.192*** (.028)	.136*** (.028)
	보호자직업	−.009 (.030)	−.013 (.029)	−.011 (.029)	−.007 (.030)	−.012 (.029)
	ln월소득	.658*** (.061)	.607*** (.060)	.621*** (.060)	.659*** (.061)	.582*** (.060)
	자택소유	−.001 (.080)	−.048 (.079)	−.001 (.079)	.007 (.080)	−.033 (.078)
	전업주부	−.015 (.065)	.001 (.064)	−.013 (.065)	−.012 (.065)	.009 (.064)
학교지역 여건	도시화정도	−.327*** (.037)	−.317*** (.036)	−.331*** (.036)	−.321*** (.037)	−.314*** (.036)
	평준화여부	−.135 (.117)	−.111 (.115)	−.169 (.116)	−.123 (.117)	−.129 (.114)
	학교경쟁력	−.001 (.066)	−.019 (.065)	(.049) (.066)	−.004 (.066)	.029 (.065)
교육진로	특목/자사고		.175 (.261)			.099 (.259)
	실업계고		−.629*** (.085)			−.526*** (.086)
	예능계고		.840* (.378)			.846* (.375)
	이공계대학		−.047 (.074)			−.063 (.074)
	예능계대학		.654*** (.111)			.698*** (.110)
부모관심	진로관심			.082* (.040)		.067 (.039)
	성취압력			.224*** (.032)		.210*** (.032)
자녀조건	맏이				.099 (.068)	.073 (.066)
	자녀수				−.065 (.054)	−.070 (.052)
R^2		.259	.286	.274	.260	.300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공업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인 현실에서 비롯되는 현상인 듯하다[12]. 남성적인(masculine) 직종에 대한 훈련기관으로 인식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남학생이 몰리고, 결국, 이들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비를 덜 지출함으로써, 평균적으로 남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점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여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남학생에 비해 좀 더 높은 현상을 일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예능계 진로에서는 실업계 진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역전된다. 예능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여학생이며[13], 이들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실 역시 고등학교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의 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예능계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다른 계열 진학 희망자들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학 진학에서 예능계 진로를 추구하는 경우 역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압도적으로 많다[14]. 이 사실도 여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점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예능계열은 사회적으로 여성적인(feminine) 진로로 인식되는 바, 실지로도 여학생들이 그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이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고등학교 단계 사교육비 지출에서 여학생이 우위인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남녀간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상당한 정도 학생들의(남녀간) 진로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진로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학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표 3>에서 읽었듯이(진로 모형),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남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더 재학하고 있는 점과 여학생이 예능계열의 진로를 더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부록 표 3> 진로 모형), 여학생의 예능계열 진로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남학생의 실업계고 재학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는(<부록 표 4> 참조) 전반적으로 1학년보다 3학년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학년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 상의 성차가 다분히 학생들의

12)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의 학년에 맞춰 2007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를 보면,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약 54%가 남학생이다. 그리고 공업고등학교 학생수가 전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의 38% 정도를 점하며,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약 86%가 남학생이다.(2007년 교육통계연보 참조).

13) 분석중인 데이터로 확인해보면, 전체 남학생 가운데 예능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0.2% 정도인데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는 1.5% 정도로 나타난다. 그리고 교육통계연보(2007)에서 전국 경향을 보면, 예능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83%가 여학생이다.

14) 역시 현재의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학년마다 조금씩 다른데(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데), 여학생의 경우 12.5%~14.7%가 예능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는 4.4%~6.2% 정도가 예능계열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2008학년도 대학 입학생의 분포를 보더라도, 음악계열의 경우 72% 정도가 여학생이며, 미술 조형 계열의 경우 73% 정도가 여학생이다(2008년 교육통계연보 참조).

진로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결론짓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특히,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남녀 학생이 서로 다른 진로 위에 있다는 점이 사교육비 지출에서도 남녀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대학 진학 진로와 다소 멀어진 남학생들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떨어지고, 예능계 진로를 추구하는 (남학생 보다 더 높은 비율의) 여학생들이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지출하고 있다. 이런 남녀 격차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남녀간 사교육비 차이를 상당한 정도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고 보면,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남녀간 사교육비 지출 차이도 아들딸을(또는 남녀를) 구분하는 전통적 차별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남녀 학생 사이에 교육 진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히 여학생이 예능계 진로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농후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애 진로가 달라야 한다는 가부장적 인식(또는 성 역할 사회화)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들(남자)은 전문적이거나 실무적인 진로를 통해 '집안의 가장'(bread-earner)으로서 요건을 갖추도록 키우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딸(여자)은 교양적이거나 '장식적인' 진로를 통해 '내조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키우려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듯하고, 이런 경향이 궁극적으로 남녀 학생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를 낳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짐작된다[15].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의 분석을 같이 놓고 보면, 서로 다른 모형이 사교육비의 성차를 설명해주고 있다. 중학교 경우는 자녀 구성 모형이 유효하였는데, 남아선호 인식이 남녀간 사교육비 차이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들을 가지려는 욕구가 남학생 가정과 여학생 가정의 자녀수나 구성을 다르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이렇게 달라지는 가족 양태가 남녀간 사교육비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반면, 고등학교 분석에서는 '진로 모형'이 뚜렷한 설명력을 보였다.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기에 다가서면서 진로에 따라 사교육 행위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진로 차이가 사교육비 지출의 성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진로가 사교육비 지출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만 주목하면, 고등학교 단계의 사교육비 성차는 합리적인 진로 결정에 따라 나타나는 '현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대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남녀 진로는 다분히 가부장적 인습 안에서 결정되는 듯하고, 이런 결정이 사교육비 성차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석에서 유효했던 모형이 서로 달랐지만, 사교육비의 성차가 우리 사회의 전통적 문화와 사고 양식의 영향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데

15) 한 심사위원이 지적한대로, 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예능계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가정에서 아들 교육에 비해 딸 교육에 더 투자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행위는 가부장적이라기보다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투자 행위가 남녀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는(딸은 좀 더 '여성적인' 진로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가부장적 전통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는 일치하고 있다. 요컨대, 남아선호나 가부장적 전통은 오늘날 단순히 남자를 더 지원하고 여자를 홀대하는 양식으로 살아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우리가 지닌 가족 구조에 이미 자연스럽게(잠재적으로) 반영되어 있거나,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양육 방식으로 모습을 바꾸어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고찰한 사교육비 지출에서의 성별 차이는 이 점을 드러내주는 한 징표인 셈이다.

V. 맺는말

이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이 학생의 성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는지 고찰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 걸쳐 종단적으로 분석하며 비교하였다. 통념적인 기대와 달리, 남녀 학생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남학생의 사교육비가 더 높게 나타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학생의 사교육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런 비교는 남녀 학생이 비슷한 조건에 놓이도록 통계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사교육비에서의 성차(性差)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도 이 연구에서 이루어졌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로 다른 모형으로 설명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학교 단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유리한 가족(자녀) 구성(적은 자녀수 등)의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육투자상 유리한 가족 환경에 속하게 되는 데는 남아를 선호하는 출산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남녀 사교육비 차이는 다분히 남녀간 진로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학생이 취업 진로를 택하여 사교육 수요를 덜 갖게 되는 경향이 있고, 여학생이 예능계 진로를 택하여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투자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남녀 사교육비 차이를 가져오는 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진로 차이 배경에는 역시 남녀를 달리 취급(배려)하는 가부장적 인습이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모두, 사교육비의 성차에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사고와 행동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연구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교육 행위의 성차 문제를 다루었다는 자체로 의의를 지닌다고 보겠다. '남존여비'의 전근대적 경향이 쇠퇴했다고 여겨지는 오늘의 맥락에서 사교육에서의 성차는 관심 둘 만한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성차는 이제 무의미해진 현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교육 행위의 성차가 표면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엄연히 실재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실재하는 성차는 우리 교육 행위를 이해하는 데

적잖은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더 나아가 그 성차가 어떤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시도를 통하여 이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우리 사회의 전통적 인습의 영향 아래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분석과 추론(논의)에 물론 한계가 없지 않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모두에서 분석상 드러난 성차는 완전하게 설명되지 못하였다. 세 가지 모형으로 설명을 시도했지만, 그 설명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연구가 설정한 가설에만 의존하여 설명의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위험한 구석이 있다. 여기에서 설명에 채택한 변인이나 모형이 채택되지 않은 다른 대안적인 모형이나 변인의 '허수아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명 변인에 근거한 추론은 (특히, 성차가 우리의 전통적 인습과 연계되어 있다는 추론은) 또 다른 가설들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좀 더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줄 탐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상진 외(2005). 고교 평준화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강태중(2008).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석에서의 차이 비교를 통한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9(2), 137-159.

강태중(2009). 고등학교 '평준화' 배정과 경쟁선발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출간 예정 논문.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교육 실태 및 대책. 미간행자료.

김미숙 외(2007) 사교육 실태조사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인숙. 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37-149.

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김현진. 최상근(2004).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31(1), 365-383.

김홍주 외(1998).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노현경(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97-118.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재정논집, 13(1), 149-163.

박미희,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백일우(1999). 입시과외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7(4), 117-136.

양정선, 김순미(2003).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사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221-232.

양정호(2003). 중학생의 과외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TIMSS-R의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 분석. 한국교육, 30(2), 261-283.

양정호(2004).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요인 분석: 청년패널조사의 위계적 일반선형모형 연구. 제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발표 논문. 11월 23일.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별관.

유형선, 윤정혜(1999).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결정요인-일반계 고등학교 과외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59-171.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 행위에 대한 경제 분석, 경제연구, 22(2), 1-31.

이주호, 홍성창(2001). 학교 대 과외: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경제학연구, 49(1), 37-56.

채창균(2006).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2), 163-179.

최상근 외(2003).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2009).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보도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수탁연구보고서.

Baker, D.P. et al.(2001).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3*(1), 1-17.

Becker, G.S. and N. Tomes(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1-s47.

Bowerman, B. L. and R.T. O'Connell (1990). *Linear statistical models: an applied approach* (2nd ed.), Belmont, CA, U.S.A.: Duxbury.

Kim, Hyunjin(2004).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and the college entrance system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Korea,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1*(1), 5-24.

Kim, Taejong(2004). Shadow education: School quality and demand for private tutoring in Korea,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orea.

Menard, S. (1995). *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07-006, Thousand Oakes, CA, U.S.A.: SAGE

* 논문접수 2009년 5월 2일 / 1차 심사 2009년 5월 10일 / 2차 심사 2009년 6월 17일 / 게재승인 2009년 6월 26일

* 강태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교육기회 균등, 학교 효과, '사교육' 행위, 교육정책의 사회학 등에 연구 관심을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대입전형, '사교육', 학교 체제 등에 관한 논문들을 출판하였다. 현재 중앙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 e-mail: tjgahg@cau.ac.kr

Abstract

The gender difference in spending for private tutorings

GAHNG, Tae-Joong*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gender difference in spending for private tutoring. An investigation was also made to identify the factors and mechanism that might generate the gender difference found. Utilizing the KYPS data set, the study did regression analysis for five longitudinal stages from 8th to 12th grades and compared the results from each grades.

The gender difference varied with school levels. At the middle school level the spending was bigger for boys but at the high school level it favored girls. The difference at the middle school level seemed related to the fact that boys tended to belong to a family of fewer siblings. At the high school level the cause of the gender difference was traced to the differences in high school tracks and expected college majors. It was also conjectured that the whole mechanism of the gender difference might be in the shadow of the traditional and patriarchical ways of living in Korea.

Key words: shadow education, private tutoring, gender gap, gender difference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부록 표 1>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의 기초 통계(평균, 표준편차): 학년별 정리

변인		중2	중3	고1	고2	고3
종속변인	ln사교육비	2.65 (1.39)	2.54 (1.52)	2.25 (1.76)	2.05 (1.82)	1.86 (1.86)
초점변인	성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개인특성	성적	57.44 (27.40)	59.14 (27.01)	61.13 (24.90)	60.46 (24.32)	61.64 (24.13)
	교육포부	3.97 (0.69)	4.06 (0.63)	4.01 (0.64)	3.96 (0.63)	3.98 (0.72)
가정배경	아버지학력	4.73 (1.31)	4.73 (1.31)	4.73 (1.31)	4.73 (1.31)	4.73 (1.31)
	보호자직업	2.69 (0.95)	2.67 (0.99)	2.59 (1.08)	2.53 (1.16)	2.51 (1.18)
	ln월소득	5.52 (0.60)	5.56 (0.58)	5.59 (0.62)	5.63 (0.62)	5.68 (0.59)
	자택소유	0.69 (0.46)	0.73 (0.44)	0.75 (0.43)	0.76 (0.43)	0.78 (0.42)
	전업주부	0.50 (0.50)	0.50 (0.50)	0.50 (0.50)	0.49 (0.50)	0.49 (0.50)
학교지역 여건	도시화정도	2.92 (1.50)	2.93 (1.50)	2.95 (1.53)	2.95 (1.53)	2.98 (1.53)
	평준화여부	0.67 (0.47)	0.67 (0.50)	0.66 (0.47)	0.66 (0.47)	1.86 (1.86)
	학교경쟁력	0.31 (0.46)	0.39 (0.49)	0.34 (0.47)	0.29 (0.45)	0.39 (0.49)
교육진로	특목/자사고	0.09 (0.28)	0.02 (0.14)	0.02 (0.14)	0.02 (0.13)	0.02 (0.12)
	실업계고	0.11 (0.31)	0.21 (0.40)	0.23 (0.42)	0.24 (0.42)	0.23 (0.42)
	예능계고	0.04 (0.19)	0.01 (0.10)	0.01 (0.09)	0.01 (0.08)	0.01 (0.09)
	이공계대학	—	—	0.17 (0.38)	0.19 (0.39)	0.28 (0.45)
	예능계대학	—	—	0.08 (0.28)	0.10 (0.30)	0.10 (0.30)
부모관심	진로관심	3.22 (1.01)	3.40 (0.95)	3.33 (0.91)	3.36 (0.88)	3.49 (0.84)
	성취압력	3.06 (1.10)	2.87 (1.05)	2.91 (1.02)	2.87 (1.02)	2.68 (1.03)
자녀조건	맏이	0.54 (0.50)	0.54 (0.50)	0.54 (0.50)	0.54 (0.50)	0.54 (0.50)
	자녀수	2.17 (0.64)	2.17 (0.64)	2.17 (0.64)	2.17 (0.64)	2.17 (0.64)

※ ( ) 안은 표준편차, '–'은 해당 없는 경우임.

<부록 표 2> 사교육비 지출의 성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중2 시기

변인		기본모형	진로모형	부모후원 모형	자녀구성 모형	종합모형
초점변인	성(남)	.096* (.042)	.091* (.042)	.102* (.042)	.067 (.042)	.067 (.042)
개인특성	성적	.005*** (.001)	.004*** (.001)	.005 (.001)	.005*** (.001)	.004*** (.001)
	교육포부	.123*** (.034)	.094** (.034)	.106** (.034)	.124*** (.033)	.081** (.034)
가정배경	아버지학력	.059** (.020)	.053** (.020)	.049** (.020)	.043* (.020)	.029 (.020)
	보호자직업	.098*** (.025)	.095*** (.025)	.092*** (.025)	.108*** .025	.099*** (.025)
	ln월소득	.773*** (.042)	.759*** (.042)	.756*** (.041)	.776*** (.041)	.746*** (.041)
	자택소유	.257*** (.047)	.257*** (.047)	.250*** (.047)	.285*** (.047)	.277*** (.046)
	전업주부	.111** (.042)	.112** (.042)	.112** (.042)	.119** (.042)	.121** (.041)
학교지역 여건	도시화수준	−.117*** (.024)	.120*** (.024)	.114*** (.024)	−.101*** (.024)	−.101*** (.024)
	평준화여부	−.106 (.076)	−.121 .075	−.088 (.075)	−.081 .075	−.080 (.074)
	학교경쟁력	.095* (.046)	.092* .046	.107* (.046)	.092* (.045)	.099* (.045)
교육진로	특목/자사고		.091 (.077)			.061 .076
	실업계고		−.360*** .072			−.356*** (.071)
	예능계고		.168 (.113)			.124 (.111)
부모관심	진로관심			.076*** (.022)		.068** .021
	성취압력			.114*** (.019)		.104*** (.019)
자녀조건	맏이				.191*** (.044)	.178*** (.044)
	자녀수				−.198*** (.035)	−.193*** (.035)
R^2		.269	.275	.279	.284	.300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부록 표 3> 사교육비 지출의 성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고1 시기

변인		기본모형	진로모형	부모후원 모형	자녀구성 모형	종합모형
초점변인	성(남)	−.138*	−.067	−.117*	−.153**	−.067
		(.058)	.058	(.058)	(.058)	(.059)
개인특성	성적	.005***	.006***	.005***	.005***	.006***
		(.001)	.001	(.001)	(.001)	(.001)
	교육포부	.352***	.159**	.310***	.347***	.132**
		(.048)	(.049)	(.048)	(.048)	(.049)
가정배경	아버지학력	.147***	.099***	.127***	.133***	.072**
		(.026)	(.025)	(.026)	(.026)	(.025)
	보호자직업	.104***	.082**	.099**	.109***	.084**
		(.030)	(.029)	(.029)	(.029)	(.028)
	ln월소득	.830***	.762***	.799***	.835***	.746***
		(.054)	(.053)	(.054)	(.054)	(.053)
	자택소유	.235**	.191**	.206**	.250***	.185**
		(.070)	(.068)	(.069)	(.070)	(.067)
	전업주부	.150*	.132*	.139*	.156**	.131*
		(.058)	(.056)	(.057)	(.058)	(.056)
학교지역 여건	도시화수준	−.230***	−.227***	−.234***	−.220***	−.221***
		(.032)	(.031)	(.032)	(.032)	(.031)
	평준화여부	.005	.032	−.030	.023	.020
		(.104)	(.101)	(.103)	(.103)	(.100)
	학교경쟁력	.079	.081	.084	.068	.071
		(.061)	(.059)	(.061)	(.061)	(.059)
교육진로	특목/자사고		.111			.091
			(.205)			.203
	실업계고		−.967***			−.912***
			(.075)			.074
	예능계고		−.042			−.124
			(.317)			(.313)
	이공계대학		−.029			−.022
			(.076)			(.075)
	예능계대학		.224*			.255*
			(.108)			(.107)
부모관심	진로관심			.143***		.130***
				(.033)		(.032)
	성취압력			.181***		.136***
				(.029)		(.028)
자녀조건	맏이				.215***	.179**
					(.060)	(.058)
	자녀수				−.131**	−.141**
					(.048)	(.046)
R^2		.296	.338	.311	.303	.355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부록 표 4> 사교육비 지출의 성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고2 시기

변인		기본모형	진로 모형	부모후원 모형	자녀구성 모형	종합모형
초점변인	성(남)	−.108^{+}	−.054	−.092	−.114^{+}	−.051
		(.058)	(.059)	(.058)	(.059)	(.059)
개인특성	성적	.003*	.005***	.003*	.003*	.005***
		(.001)	(.001)	(.001)	(.001)	(.001)
	교육포부	.482***	.263***	.426***	.474***	.226***
		(.050)	(.051)	(.050)	(.050)	(.051)
가정배경	아버지학력	.271***	.215***	.247***	.263***	.192***
		(.025)	(.025)	(.025)	(.025)	(.025)
	보호자직업	.098***	.081**	.089**	.100***	.077**
		(.028)	(.027)	(.027)	(.028)	(.027)
	ln월소득	.601***	.522***	.571***	.606***	.509***
		(.054)	(.052)	(.053)	(.054)	(.052)
	자택소유	.196**	.151*	.179*	.206**	.149*
		(.071)	(.069)	(.070)	(.071)	(.068)
	전업주부	.168**	.163**	.172**	.172**	.171**
		(.059)	(.057)	(.059)	(.059)	(.057)
학교지역 여건	도시화수준	−.240***	−.239***	−.232***	−.233***	−.227***
		(.033)	(.032)	(.033)	(.033)	(.032)
	평준화여부	−.072	−.052	−.067	−.058	−.036
		(.105)	(.102)	(.104)	(.105)	(.101)
	학교경쟁력	0.76	.052	.081	.076	.051
		(.064)	(.062)	(.065)	(.064)	(.063)
교육진로	특목/자사고		.321			.320
			(.220)			(.218)
	실업계고		−.952***			−.894***
			(.074)			(.074)
	예능계고		.704*			.640^{+}
			(.354)			(.352)
	이공계대학		.200**			.196**
			(.075)			(.074)
	예능계대학		.469***			.477***
			(.099)			(.099)
부모관심	진로관심			.138***		.121***
				.034		(.033)
	성취압력			.186***		.134***
				(.029)		(.028)
자녀조건	맏이				.149*	.115^{+}
					(.061)	(.059)
	자녀수				−.069	−.079^{+}
					(.049)	(.047)
R^2		.284	.332	.298	.287	.342

*** p < .001, ** p < .01, * p < .05, + p < .10